

학교에서 카톡으로 업무하고 싶습니다.

유안초등학교
최만

필자는 미래사회, 미래교육에 관심이 많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미래사회, 미래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필자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지금 사회에서 찾는다. 사회의 변화를 보면 교육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야 할런지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밤 한국이 독일을 2:0으로 이기는 역사를 만들었다. 멕시코에서는 한국에게 감사하는 이벤트가 넘쳐나고 있다. 지구 여러 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이 일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글로벌한 사회가 되었다.

다른 나라 교육 상황을 보면, 컴퓨팅 교육, 스팀교육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이다. 영국은 5살부터 코딩교육을 주1회 의무화하고 있다. 가까운 싱가포르에서는 4살부터 코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교육현장은 어떠한가? 유치원 코딩교육은 현재 금지 공문이 내려온 상태다. 정규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교육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장 빠른 학년이 공식적으로는 5학년이라고 한다. 그마저 초등 경우 적용은 내년부터라고 한다. 교과서에선 단원의 위계를 맞추려 6학년에만 편성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제 한 달 후면 방학이다. 방학 마다 필자는 글로벌 교육을 배우려 해외에 자비로 연수를 간다. 올해 초엔 홍콩과 일본 선생님과 교육자들에게 한국 컴퓨팅 교육을 소개했다. 전 세계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 공유 경제 기반 플랫폼이 대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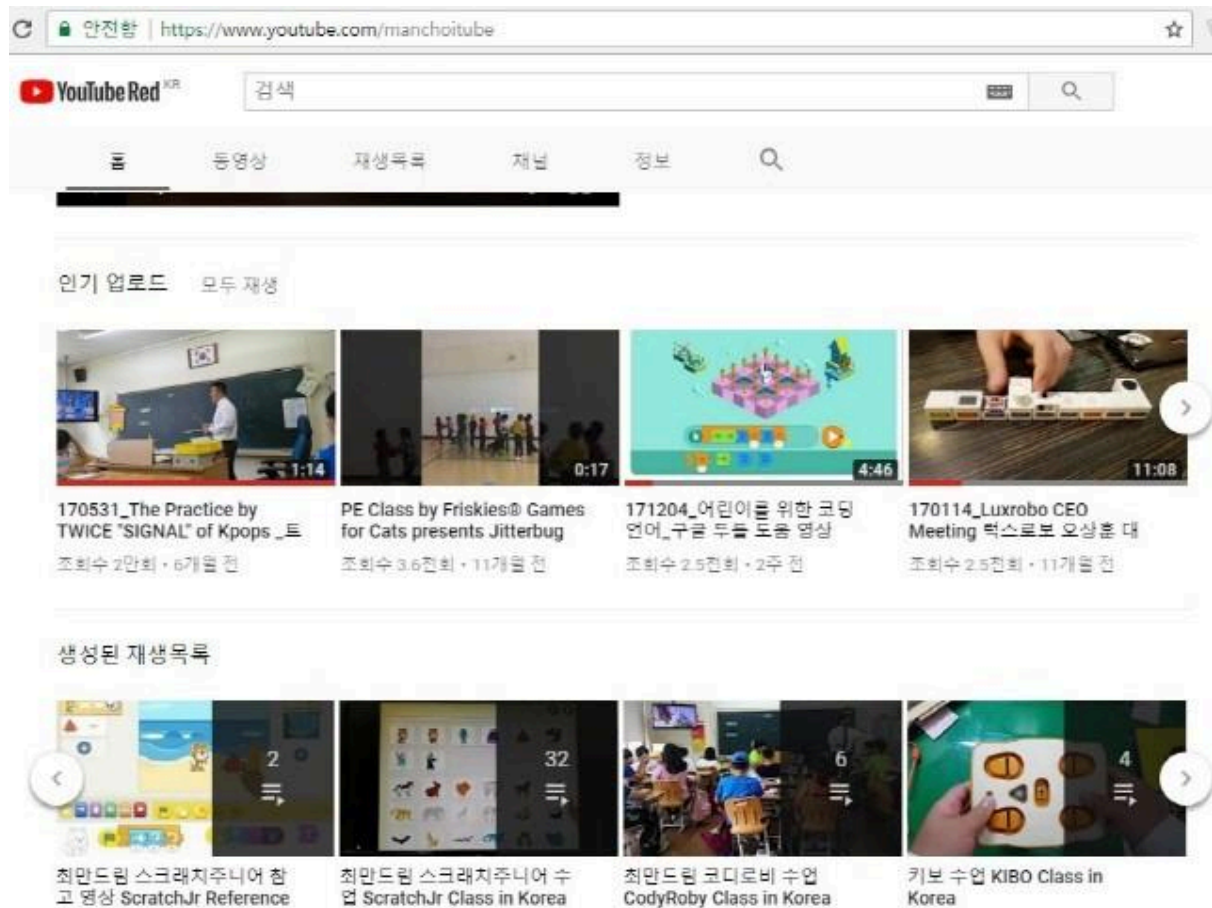
작년 7월 26일 전국 학교로 배송된 공문 ‘국가사이버안전센터사책’에는 명함 또는 전자우편 서명내 ‘상용메일 주소’를 표기 금지하고 있다. 중요 회의 참석시 스마트폰을 휴대하면 안 되고, 전원을 차단해야한다. 스마트폰에 업무 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은 자택 및 공공장소 등에서 필요시에만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 SNS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자료 소통을 금지하고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러한 금지 공문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카카오톡, 밴드 등 SNS 프로그램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편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교육 자료를 집에서 공무원 전용 메일로 보낸 후에 학교에서 받아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다. 필자의 경우 학교에서 카카오톡으로 교육자료가 온 경우 와이브로장비(에그)에 연결된 필자 노트북에 있는 카카오톡 프로그램으로 받은 후에 다시 필자의 공무원 메일로 보낸다. 그리고 나서 학교 업무용 컴퓨터로 교육자료를 확인한다. 단지 카카오톡이 학교 컴퓨터에 접속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유튜브, 구글 문서 등 구글앱스를 즐겨 사용한다. 구글앱스는 윈도우나 맥,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환경에서 크롬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필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만튜브>

필자는 수업이나 강연을 유튜브에 저장한다. 강의자료는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어 공유한다. 공유와 협업에 편한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재 나와있는 서비스 중 필자가 시간을 투자해 만든 수업 자료와 강연 자료를 지속가능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선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학급 홈페이지는 1년 주기로 리뉴얼 된다. 매년 초 학생들의 소중한 자료가 모두 없어진다. 그래서 필자는 네이버 카페를 학급 홈페이지로 활용한다. 현재 400여명의 제자와 필자의 추억이 네이버 카페 가상공간에 살아있다.



<네이버 학급카페 일부 발췌 사진>

소통의 시대다. 작년 지역공동 영재학급을 운영하며 학부모에게 단체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퇴근 후 늦은 저녁 시간 전화를 많이 받은 전 업무 담당 선생님보다 민원 업무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단체 문자 서비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다. 학생들은 학교를 나와서 학교에서 사는 것이 아닌 일반 사회에서 산다. 학교만을 위한 고차원적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회에서 편하게 널리 사용하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육하고 싶다. 학교에서 사회의 플랫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선생님을 보며, 학생들도 나중에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미래교육체험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 미리 와 있다. 이렇게 미리와 있는 서비스를 교육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카톡으로 업무하고 싶다.